

외지업체로 운영권 넘어간 우치공원 재개장 3개월 청룡열차 여전히 멈춰있다

놀이시설 19종 중 12종 수리 외면 수익 급급 '반쪽 운영' 이용객 불만

민선 5기 광주시의 역점사업인 '명품화 사업' 무산으로 우치공원(패밀리랜드) 운영권이 외지업체로 넘어간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주요 놀이시설물의 운행이 중단·방치되는 등 '반쪽 운영'되면서 이용객의 불만이 높다.

특히 일부 놀이기구의 경우 부품교체 등 정비가 시급한 데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광주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2일 광주시와 광주패밀리랜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6월 시 소유인 우치공원의 위탁·관리 업체로 대전 해수욕장 놀이시설 운영업체인 필랜드를 선정했다. 필랜드는 1년 위탁료로 광주시의 제시 예산가 4억5300만원보다 높은 6억6000여만원을 제시했다.

기존 운영자인 ㈜금호리조트가 연 2억5000여만원의 낮은 위탁료로 운

영해오다 특혜 의혹 등으로 운영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타지역 업체인 필랜드가 운영권을 넘겨받게 된 것이다.

필랜드는 금호패밀리랜드를 광주 패밀리랜드로 개명하고 지난 7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19종의 유희(놀이)시설 중 부품교체와 도색 등 수리가 시급한 시설은 12종에 이른다. 특히 패밀리랜드의 랜드마크 역할을 맡고 있는 청룡열차는 1년 넘게 운행 자체가 중단돼 있다.

이미 임대계약을 마친 광주패밀리랜드 측은 청룡열차 등 12종의 놀이시설 수리 비용으로 최소 4억9000여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시설 소유자인 광주시를 상대로 수리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계약을 맺고 정식영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돼 시설개선 등이 이뤄질 경우



美 슬로파워 태양전지 광주공장 기공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인 CIGS 박막형 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미국 슬로파워코리아(주) 광주공장 기공식이 2일 광산구 평동산단내 월전외국인투자지역에서 열렸다. 슬로파워는 2억5000만달러(한화 2750억원)를 투입해 내년 4월까지 박막형 태양전지 제조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조원은 어디서?

광주시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원 확보 방안 없어 '장밋빛 청사진' 우려

광주시가 재원확보 계획도 없이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공원 개발 계획을 발표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구 풍암동 중앙근린공원(293만 9337㎡) 당당성 검토 및 조성계획수립을 최종보고회를 갖고 오는 2017년까지 5단계 조성과정을 통해 7개 권역을 개발하고, 7개 참여프로그램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앙공원 '577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2010년 7월 지역민 2460명이 1975년 지정된 중앙공원조성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재수립을 요청했고, 이를 광주시가 받아들여면서 이뤄진 것이다.

보고회에서는 중앙공원을 백일산

권역과 짚봉산 권역, 풍암산 권역, 일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공원 개발 계획을 발표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백일산 권역은 산촌·화정동 복합생활공원으로 조성되며, 허브정원과 생태연못, 농업 산책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짚봉산 권역은 2015광주U대회 양궁장을 조성한 뒤 대회가 끝나면 커뮤니티 스포츠공원과 초지 공원 등으로 활용된다. 풍암산 권역은 마재·금호동 복합생활공원으로 꾸며지며 에코 브리지 등 기반시설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업을 추진할 재원 확보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사업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종용역보고서에 토지보상비 8000억원 등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공원 보상·개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자체 예산으로는 중앙공원의 개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가 직접 조성·관리하는 '국가공원'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 국적으로 광주 중앙공원처럼 장기미집행 공원면적만 705km로, 50조~60조원의 매입·보상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의 총 예산이 30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에서 최대 60조원에 이르는 공원보상비를 지원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종용역보고서



에 누락된 중앙공원 개발 재원 확보 계획을 이르면 시일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면서 "국가공원 지정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받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시 자체 사업비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전남 치매환자 5만 1599명

인구 대비 비율 전국 상위권...전국은 58만명 거점병원 지정·관리시스템 마련 등 대책 시급

광주·전남지역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가 5만1599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매환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치매환자는 53만400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7만6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광주 지역 치매환자는 1만3227명, 전남 지역 치매환자는 3만8372명으로 집계됐다.

환자 숫자로는 전남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중 경기(10만587명), 서울(8만3505명), 경북(4만5437명), 경남(4만1999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

았다. 하지만, 총 인구 대비 치매환자 비율은 전남이 2.0%로 경북(2.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는 인구 대비 치매환자 비율이 0.89%로, 7개 특별·광역시 중 부산(1%)과 대구(0.9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김 의원은 "치매 환자가 오는 2024년에는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치매거점병원 지정,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에도 국가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턱없이 허술한 만큼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상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피부

셀-바이오™ 과학으로 매일매일 맑고 매끄럽게- 헤라 셀 에센스

바쁜 생활 속에서도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를 놓칠 수 없다면 헤라 셀 에센스를 시작해보세요. 헤라는 셀-바이오™ 과학을 통해 피부 활성화를 핵심, 생체수를 모사한 셀-바이오 플루이드 싱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생체수의 다섯 가지 비일코드(아미노산, 이노신, 유제, 펩타이드)를 연구한 헤라 셀 에센스-놀라운 피부변화를 느껴보세요*

1일 사용 후, 사용자의 98%가 피부가 더 매끄러워지고 96%가 피부가 밝아지는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Cell-Bio™ 피부 동화 포몰라
일본 동경대학의, 근원적인 연구를 통해 피부의 미세한 생명을 모사, 피부에 빠르게 동화되어 효과적인 피부변화를 선사합니다.

HERA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90-023-5454(수신지 요금부담) www.hera.co.kr

*사용 직후 피부가 촉촉해지고 밝아지고 / 2주째에는 효과-2535 생체수인 단백질 함량 증가 (총 21명, 2013.5.29~6.20 (비타포토))
**1일 사용 후,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 2주째에는 효과-2847 생체수인 5-9항 단백질 함량 증가 (총 60명, 2013.7.15~7.28 OIK KOREA)